

“미래 전략산업 가속… 인구 10만 향해 전진”

민선 8기 3년

공영민 고흥군수

전라남도 고흥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 다져온 미래 기반을 다짐들로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전략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군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남은 1년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지난 3년은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고흥의 미래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3년간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단 에타면제 확정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전략산업 선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흥 3대 교통인프라

관광객 1000만 시대 기반 마련 우주·드론·스마트팜 중심 성과

라(고속도로, 철도, 국도) 추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SA) 획득 △정부합동평가 전남 22개 시군 중 최초 1위 달성 등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 기반 마련, ‘돈 되는 축제’로의 지역축제 패러다임 전환, 2027년 제66회 전남도민체전 유치 확정, 농수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등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여왔다.

공영민 군수는 ‘2030 인구 10만 고흥’ 실현을 향후 1년간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3대 미래 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 연계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군은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해 새 정



공영민 고흥군수.

부 대선공약에 반영된 고흥 관련 6개 핵심과제의 국정과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광주~고흥 고속도로(53km), 고흥 우주선 철도(46.8km),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 미래비행체 산업 허브 육성, 그린수소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자립화, 국립 고흥다도해산림치유원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고흥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남도가 새 정부에 건의할 7대 대선공약의 세부사업 가운데 고흥 관련 사업은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총 14건이 반영돼 있다. 고흥군은 이들 사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그동안은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군민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이 고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군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85.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18.0%)이 2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우주항공’(14.5%), ‘주민복지’(13.3%), ‘지역경제 활성화’(11.4%) 순으로 조사됐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탐진강 생태탐방로 조성 방림소~연산교 등 2개 구간

전라남도 장흥군은 국가하천인 탐진강변을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탐진강 생태탐방로’가 최근 완공됐다고 30일 밝혔다.

탐진강을 따라 조성된 4km의 생태탐방로는 나무데크로 조성됐으며 장흥읍 방림소에서 연산교, 물과학관에서 부산교까지 하천 양방향 두 구간으로 나뉜다.

생태탐방로는 강과 숲이 어우러져 자연을 걷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일상 속 쉼과 여가를 더해주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물과학관에서 부산교까지 이어지는 2.5km의 벚꽃길 구간은 봄철마다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탐방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인근의 정남진 물과학과 생태습지정원에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탐방로 개설 전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좁은 제방을 함께 이용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으나, 보행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이용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 문수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총사업비 55억 투입

전라남도 여수시가 문수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30일 개소했다.

기존 문수동 주민센터(문수동 161-5번지)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돼 민원인의 이용 불편과 업무 효율성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문수동 169-2번지 부지로 이전을 결정하고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연면적 148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새롭게 조성했다. 신청사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중대본부 및 회의실 공간을 마련했다.

인근에는 여문공원과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주민 간 소통과 문화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관계자들이 배와원 농가를 방문해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찾아가는 기술지도’ 현장 지원 강화

전라남도 순천시가 농업 현장과의 밀착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전 직원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는 등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현장대응1팀(과수)과 현장대응2팀(채

소·특작)은 작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병해충 진단, 재배기술 상담, 생육상태 점검 등 밀착형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농가별 맞춤형 상담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업인과의 신뢰 회복과 만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수요일을 ‘농업 현장 방문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작물별 농업현장을 찾아 기술지도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복숭아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 복숭아 재배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방제 활동을 실시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백억커피 맞손…‘키위키키’ 음료 출시

유통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보성군은 최근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백억커피’로 알려진 ㈜오가다와 보성산 키위를 활용한 음료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는 보성산 키위를 원료로 한 신제품 음료 출시, 공동브랜드 ‘키위키키(Kiwikiki)’ 활용 마케팅, 지역 농가와

연계한 유통망 확대 등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 성공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평가다.

군은 보성키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공동브랜드 ‘키위키키’를 선포하고, 프리미엄 과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해 왔다.

보성군과 백억커피는 7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보성 키위 공동브랜드 ‘키위키키’를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하고, SNS 캠페

인 및 오프라인 할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승운 ㈜오가다 대표는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보성키위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강음료 시장에 매우 매력적인 자원”이라며 “단순한 제품을 넘어 소비자에게 보성의 자부심을 전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보성키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생산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양종수 기자

순천시,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지역상품권 1만5천원 이상 결제 시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7월1일부터 여름방학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에서 순천사랑상품권으로 1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여름방학 기념 지역사랑 할인 행사는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지급하는 1만원 할인쿠폰(1인당 월 1회), 가맹점 자체 할인쿠폰 등과의 중복 사용도 가능해 이용자들이 더욱 풍성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한(1.5%)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먹깨비 가맹점 신청 및 문의는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 혹은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먹깨비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 이벤트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접수 3천만원 대출 시 이자 전액

전라남도 순천시가 고금리 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3분기 금융지원 신청을 7월1일부터 접수한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보증대출 시 연 5% 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원 상당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자금 지원은 연 150억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상반기 110억원의자금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잔여 재원을 활용해 40억원 규모의 추가 용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폭염에 대비해 접수 시간이 앞당겨진 만큼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 순천시 대전머리길 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 추진을 비롯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배달료 신규 지원 및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확대, 스마트기기 설치비 지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소비 촉진·경영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